

【일반논문】

북한주민의 남한 문화 경험이 통일의식에 미치는 영향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북한이탈주민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정동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국문요약

한류의 확산과 더불어 북한 사회에도 남한의 문화가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내 남한 문화가 어떠한 경로로 확산되는지, 그리고 북한주민의 의식변화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최근 들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남한 문화의 확산이 북한주민의 통일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2011~2016년 북한이탈주민 의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주민의 남한 문화 경험이 그들의 통일의식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남한 문화를 자주 경험할수록 통일을 더 가까이 예상하고, 통일을 북한과 자신에 더 이롭다 여기며, 남한 체제로의 통일을 보다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계는 장사의 경험, 타지역 방문, 남한에 대한 지식 등, 남한 문화 접촉과 관련된 대안적 변수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강하게 유지되었다. 아울러 미디어를 수용하는 북한주민의 정치사회화 정도에 따라 남한 문화의 경험이 갖는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남북 간 문화 교류의 확대가 북한 사회에 긍정적 통일의식을 고취시키는 정책적 효용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북한 한류, 북한주민 통일의식, 탈북자 설문조사, 남북 문화교류, 미디어 수용.

I. 서론

대한민국 문화의 해외 확산을 의미하는 이른 바 ‘한류(韓流)’는 이제 더 이상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아시아를 넘어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흐름이 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휴전선을 넘어 북녘 땅에까지 전파 되기에 이르렀는데, 남녀노소와 당의 고위 간부, 일반인을 막론하고 비 공식적 경로로 남한의 음악과 드라마를 감상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다.¹⁾ 이러한 북한 내 한류의 확산과 더불어 어떠한 경로로 남한의 미디어가 전파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접한 북한주민들의 의식과 태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한류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2000년대 이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식 변화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전반적인 남한 사회에 대한 이미지나 북한 또는 남한의 정권에 대한 태도 변화에 국한되었고, 보다 구체적인 이슈별 입장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특히 북한주민들이 통일에 대해 가지는 여러 견해들, 즉 통일의식이 남한 문화와의 접촉을 통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는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통일의식이란 “통일에 대해 갖는 사상·관념·감정뿐만 아니라 통일에 대한 의지와 열망을 포함”하는 시민들의 정치태도를 일컫는 말로,²⁾ 실질적인 통일의 주체인 시민들이 통일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들이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어떠한 방식의 통일을 언제, 어떻게 이루어나갈 지가 결정

1) 이용희, “북한 내 한류가 통일에 미치는 영향,” 『통일문제연구』, 제26권 2호 (2014), pp. 156~158.

2) 정은미, “남북한주민들의 통일 의식 변화: 2011~2013년 설문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과평화』, 5집 2호 (2013), p. 75.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통일의 또 다른 당사자인 북한의 주민들이 통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였다.³⁾ 남한 사회의 통일의식 못지않게 북한 사회의 통일의식을 이해하는 것은 통일을 둘러싼 여러 정책의 마련에 있어 특히 중요하다. 북한의 통일의식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우리의 입장만을 정책에 반영할 경우 그 결과를 담보하기 어렵고,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요즘같이 남한의 문화가 북한 내에 확산되어 가는 시기에 더욱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다. 대북 정책으로 인해 파생된 남북 간 문화 접촉면의 증대가 북한주민들의 통일의식에 어떠한 변화를 야기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남북 문화교류가 얼마나 북한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지, 그 효용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어왔다. 남한 문화를 경험할수록 통일과 남한 사회에 긍정적 인식을 가지게 된다는 주장이 많지만,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미디어에의 노출이 오히려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주장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북한 내 한류의 확산이 북한주민들의 통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이론적 측면뿐 아니라 정책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북한주민의 남한 문화 경험이 그들의 통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본론의 첫 장에서는 문화와 미디어가 태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 북한의 한류 확산과 그것이 북한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의 흐름을 정리하도록 하겠다. 그러한 정리를 바탕으로 기존 연구가 다루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고, 본 연구가 어떻게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지를 제시하겠다. 이어서 본격적인 분석에 필요한 가설과 변수를 소개

3) 강동완·박정란, “북한주민의 통일의식 조사 연구: 북한주민 100명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23권 2호 (2014), pp. 1~31.

하고, 분석 방법 및 결과에 대해 논의토록 하겠다. 마지막 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가 가지는 이론적, 정책적 함의에 대해 논하도록 하겠다.

II. 이론적 논의

1. 문화와 미디어가 개인의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

문화가 개인의 태도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기존의 연구에서 많이 논의되어 온 주제이다. 대표적으로 한 사회의 문화적 특질이 시민들의 정치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아몬드와 버바는 그들의 고전적 연구에서 문화를 “사회적 대상에 대한 심리적 정향(orientation)”⁴⁾으로 광범위하게 정의하였다. 문화는 그 사회의 지리, 종교, 역사 등의 거시적 변수들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오랜 시간을 거쳐 형성되는데, 헌팅턴과 같은 학자는 비슷한 문화를 공유한 지역을 ‘문명(civilization)’ 또는 ‘문화 지대(cultural zone)’로 명명하고 이러한 문명이 그 지역의 가치와 신념 체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⁵⁾ 시민사회와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이념적 기초를 제공한 퍼트남 역시, 한 사회의 문화는 구성원 개개인의 가치와 태도를 넘어 그 사회의 정치경제적 성과에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⁶⁾ 경제발전을 통해 후기산업화 사회로

4) Gabriel A. Almond and Sidney Verba, *The Civic Culture: Political Attitude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3), p. 5.

5) Samuel P.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Simon and Schuster, 1996).

6) Robert D. Putnam,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들어가면서 탈물질주의적 가치와 이슈가 중요해진다고 주장한 잉글하트와 동료들 역시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⁷⁾ 이들은 경제발전이라는 변수를 통제된 후에도 문화가 그 사회구성원의 가치와 태도에 지속적인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⁸⁾ 즉, 어떠한 문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사회구성원이 가지는 전통 대(對) 세속의 가치, 그리고 생존 대 자기표현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와 가치·태도와의 관계를 본 논문의 주제와 연결지어보면, 지속적인 남한 문화에의 노출이 북한주민들의 태도와 의식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영향력의 중요한 매개체 중 하나가 바로 미디어이다. 미디어가 개인의 태도와 신념, 나아가 정치참여와 같은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어 왔다. 미디어의 효과는 크게 공급의 측면에서 미디어가 수용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와, 수요의 측면에서 그러한 미디어의 영향이 수용자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공급의 측면에서 미디어는 텍스트를 통하여 의미를 생산하는 주체로, 수용자는 그러한 내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상으로 다루어진다.⁹⁾ 이러한 연구들은 미디어가 수용자의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7) Ronald Inglehart,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Ronald Inglehart and Christian Welzel, "Political Culture and Democracy: Analyzing Cross-Level Linkages," *Comparative Politics*, vol. 36, no. 1 (2003), pp. 61-79.

8) Ronald Inglehart and Wayne E. Baker, "Modernization, Cultural Change, and the Persistence of Traditional Valu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65 (2000), pp. 19-51.

9) Paul Power, Robert Kubey, and Spiro Kiouisis, "Audience Activity and Passivity," in William B. Gudykunst, ed., *Communication Yearbook 26* (Taylor & Francis, 2002), pp. 116-159.

그러한 결과를 통해 그들의 태도와 행동을 예측하고 통제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¹⁰⁾ 구체적으로 미디어는 개인의 정치적 이념과 정책 선호, 정당일체감의 형성,¹¹⁾ 선거와 시위 등의 정치 참여,¹²⁾ 관용과 같은 시민적 태도,¹³⁾ 정치 지식, 그리고 정치효능감과 신뢰감¹⁴⁾ 등에 유효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미디어의 영향력은 특히 1970년대 TV의 보급과 함께 활발히 연구되기 시작했는데, 이후 인터넷과 각종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이들이 가지는 다양한 효과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전통적인 신문, 잡지라는 매체에서 TV의 보급, 그리고 최근 인터넷과 복합미디어의 등장 등 미디어 기술에 있어 어떠한 혁신과 진화가 이루어졌는지,¹⁵⁾ 서로 다른 매체가 어떻게 상이한 효과를 가져오는지,¹⁶⁾ 그리고 특히 인터넷의 등장으로 시민들의 정치 태도와 참여가 어떻게 변

-
- 10) 민인철 · 이동근, “능동적 수용자론에 대한 소고,” 『언론과학연구』, 제5권 3호 (2005), pp. 158~160.
- 11) Logan Dancy and Paul Goren, “Party Identification, Issue Attitudes, and the Dynamics of Political Debat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4, no. 3 (2010), pp. 686~699.
- 12) 성동규 · 양소정 · 김양은 · 임성원, “온-오프라인 정치참여에 대한 미디어 영향력 비교 연구: 뉴스이용 미디어에 따른 수용자 세부화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24호 (2007), pp. 5~49.
- 13) Thomas E. Nelson, Rosalee A. Clawson and Zoe M. Oxley, “Media Framing of a Civil Liberties Conflict and Its Effect on Toleran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1, no.3 (1997), pp. 567~583.
- 14) 황상재 · 홍성현, “북한이탈주민의 온라인 · 오프라인 뉴스 미디어 이용과 정치 사회화,”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29권 4호 (2012), pp. 360~363.
- 15) Brian Winston, *Media Technology and Society: A History From the Telegraph to the Internet* (Routledge, 1998).
- 16) 성동규 · 양소정 · 김양은 · 임성원, “온-오프라인 정치참여에 대한 미디어 영향력 비교 연구: 뉴스이용 미디어에 따른 수용자 세부화를 중심으로,” pp. 5-49; 황상재 · 홍성현, “북한이탈주민의 온라인 · 오프라인 뉴스 미디어 이용과 정치 사회화,” pp. 351~410.

하고 있는지¹⁷⁾ 등이 주로 연구되었다. 다른 쪽에서는 이러한 매체의 차이가 뿐 아니라 미디어가 전달하는 내용에 따라 수용자에게 상이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미디어 접촉과 관련해서는 그들이 접한 프로그램의 내용이 정보적인지, 아니면 오락적이고 선정적인지에 따라 그들의 남한에 대한 인식과 남한 문화로의 동화에 서로 다른 효과를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¹⁸⁾

이렇게 공급의 측면에서 미디어의 영향력을 다룬 연구들과는 달리 수요의 측면에서는 미디어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과 소비 성향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수용자 입장에서 미디어를 받아들이는 과정은 레비와 윈달¹⁹⁾에 의해 체계적으로 개념화되었는데, 미디어 노출 전의 선별과정에 해당하는 ‘선택(selectivity)’, 미디어 수용 과정에서 생기는 수용자의 정보처리과정을 의미하는 ‘관여(involve)’,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인 미디어를 향후 자신의 태도와 행동에 연결짓는 ‘활용(“use”)’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²⁰⁾ 이 중 특히 수용자가 미디어를 받아들이는 관여의 과정에서 수용자들이 어떠한 인지적·정서적 반응을 보이는지가 많은

17) Kate Kenski and Natalie Jomini Stroud, “Connections Between Internet Use and Political Efficacy, Knowledge, and Participatio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Electronic Media*, vol. 50, no. 2 (2006), pp. 173~192.

18) 강태영·황유선·강경미,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남한 텔레비전 시청 행위와 사회 적응,” 『한국언론학보』, 제55권 6호 (2011), pp. 82~102; 곽정래, “북한이탈주민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사회적 가치 수용과 삶의 질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55권 3호 (2011), pp. 219~247; 박정란·강동완, “북한주민의 남한 미디어 수용과 ‘왜곡된 남한 상’.”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2012), pp. 239~270.

19) Mark R. Levy and Sven Windahl, “Audience activity and gratification: A conceptual clarification and exploration,” *Communication Research* vol. 11, no. 1 (1984), pp. 51~78.

20) 김미라, “HDTV 초기 수용자의 능동적 미디어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50권 2호 (2006), p. 38.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다.²¹⁾ 특히 이러한 인지적·정서적 반응은 수용자 개인적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는데, 성별, 교육 수준, 소득수준, 사회계층 등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개인의 가치와 이념, 그리고 삶의 경험 등에 의해 관여의 과정이 다르게 나타나고, 이러한 차이가 그들의 태도와 행동에도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²²⁾

다른 한 편에서는 미디어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것을 넘어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통제하는 ‘수용자 능동성(audience activity)’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수용자 능동성은 특히 인터넷, HDTV와 같은 디지털 미디어의 등장과 함께 혁신적으로 제고되었다.²³⁾ 능동적 수용자는 미디어의 내용을 자신의 신념, 가치, 선호에 따라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자신의 필요를 충족해간다. 뿐만 아니라 공급원의 가치·문화를 반영한 미디어의 내용을 주체적으로 해독함으로써 미디어의 영향에 저항해가기도 한다.²⁴⁾ 또한 오늘날의 뉴미디어 시대에는 미디어 소비의 시·공간과 내용을 자유로이 선택하기도 하고²⁵⁾ 더 나아가 자신이 직접 미디어를 생산하는 주체, 즉 수용자이자 동시에 생산자(“producersage”=produce+usage)가

21) 김봉철·최명일·김유미, “TV 자선모금 프로그램에 대한 수용자의 정서적·인지적 관여가 기부의도에 미치는 영향,” 『미디어 경제와 문화』, 제10권 3호 (2012), pp. 48-88; 이창훈·박성복, “시청기기 차이에 따른 수용자의 미디어콘텐츠 수용에 관한 연구: 수용자의 인지, 정서 반응과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26권 1호 (2012), pp. 83-125.

22) Nicholas Garnham, *Emancipation, the Media, and Modernity: Arguments about the Media and Social Theory*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박정란·강동완, “북한 주민의 남한 미디어 수용과 ‘왜곡된 남한 상,’” pp. 243-244.

23) 김미라, “HDTV 초기 수용자의 능동적 미디어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pp. 33-59.

24) James S. Ettema and David Charles Whitney, *Audiencemaking: How the Media Create the Audience* (Sage Publications, 1994), pp. 1-18.

25) 김미라, “HDTV 초기 수용자의 능동적 미디어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pp. 38-39.

되기도 한다.²⁶⁾

미디어의 영향에 관한 이러한 기존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미디어를 통해 북한에 전파되는 남한의 문화가 북한주민들의 태도와 인식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특히 오늘날 북한의 어려운 정치경제적 현실을 생각할 때,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남한의 발전된 모습이 그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과 의식에 변화를 가져왔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적 접촉이 북한주민들의 통일과 대남 인식에 꼭 긍정적인 영향만을 줄 것이라 생각할 수는 없다. 미디어를 수용하는 개개인의 사회적 환경과 삶의 경험에 따라, 그리고 그들이 접하는 미디어의 내용에 따라 그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남한 문화의 영향력과 북한주민의 인식에 대한 논의들은 이어지는 장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다.

2. 남한 문화와 미디어가 북한주민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가 북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거시적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다. 지속적인 남북 교류가 북한의 개혁과 개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집합적 차원에서 북한 사회에 어떠한 정치경제적 변화를 가져오는지가 주된 논의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개인적 차원에서 북한주민의 남한 문화 접촉이 그들의 의식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정은 정권 이후, 북한주민의 남한 미디어 경험과 유통 경로, 그리고 남한 문화가 그들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 등 개인적 수준의 연구들이 진행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2000년대 후반 이후 한국 문화가 한류의 흐름을 타고 아시아 전역

²⁶⁾ 윤여광, “미디어 세분화에 따른 수용자 자율성 증대와 새로운 콘텐츠 패러다임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제9권 1호 (2015), pp. 53-544.

에 퍼져나가는 시점과 그 때를 같이 한다 할 수 있다. 한류란 전통문화와 문화예술, 그리고 대중문화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한국의 문화가 아시아와 세계로 뻗어나가는 현상을 일컫는데,²⁷⁾ 1990년대 말 생성되기 시작하여 2000년대 후반 K-pop과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본격적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한류의 흐름에 북한도 예외는 아니어서, 중국으로부터의 밀수와 장마당을 통한 유통, 그리고 고위 간부층과 남한 내 탈북자 가족으로부터의 유입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남한의 영상과 음악들이 북한 사회에 퍼지기 시작했다.²⁸⁾ 북한의 한류에 대한 연구는 임석준과 동료들²⁹⁾이 정리하였듯이, 크게 미디어의 종류—선전미디어 또는 상업미디어—와 연구대상—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주민—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상업미디어의 보급만을 한류의 대상으로 국한한다면, 북한의 한류 연구는 그 조사대상을 북한이탈주민으로 하느냐 아니면 현재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하느냐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전자의 연구로는 최근 북한 한류의 동향과 영향에 대해 주목할 만한 연구물들을 생산해내고 있는 강동완과 박정란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강동완과 박정란³⁰⁾은 탈북자 30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남한의 영상매체가 북한에 유통되는 구조를 지역 간 경로와 대인 간 경로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이러한 경로를 통해 확산된 영상매체가 북한 사회의 지역과 계층 구조를 허물며 주민들의 의식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박정란과 강동완³¹⁾은 15명의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27) 임석준·강동완·김현정, “북한의 한류 연구,” 『북한학연구』, 제10권 2호 (2014), pp. 83~111.

28) 이용희, “북한 내 한류가 통일에 미치는 영향,” pp. 155~161.

29) 임석준·강동완·김현정, “북한의 한류 연구,” pp. 83~111.

30) 강동완·박정란, “남한 영상매체의 북한 유통경로와 영향: 지역간·대인간 연결 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19권 2호 (2010), pp. 107~140.

연구에서 북한주민들의 남한 미디어 수용이 남북 사이의 문화적 이질감을 줄이고 남한에 대한 긍정적인 상을 심어주는 데 기여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수용자가 얼마나 북한의 정치사회화에 동화되었는지 등의 차이에 따라 오히려 남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시킬 수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박정란과 강동완³²⁾은 100명의 탈북자로 조사대상을 확대한 후속 연구에서 남한의 미디어 수용이 북한주민의 인권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들은 아직 북한주민들이 남한의 미디어를 통해 노동권, 성평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 사법권의 독립과 같은 정치적 권리를 명확히 개념화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북한과는 다른 남한의 인권 실상을 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을 키워가고 있다고 말하였다.

윤선희³³⁾와 이미나·오원환³⁴⁾은 북한의 청소년과 청년을 중심으로 남한 미디어 수용의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먼저 윤선희는 중국 내 북한 청소년에 대한 참여관찰과 탈북 청소년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남한의 문화가 북한의 정치적 억압에 대한 저항과 기존 문화의 해체를 이끌어가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미나와 오원환은 탈북과정에서 따른 한류 수용의 변이가 이후 남한 사회에서의 적응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힘으로써 한류를 통한 남북 간 문화적 이질감의 해소가 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음을 말하였다.

다음으로 북한주민에 대한 연구는, 북한에 직접 들어가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연구 여건 상 거의 실시된 바가 없지만, 강동완과 박정란 등을

31) 박정란·강동완, “북한주민의 남한 미디어 수용과 ‘왜곡된 남한 상.’” pp. 239~270.

32) 박정란·강동완, “북한주민의 남한 미디어 수용과 인권외식 변화,” pp. 199~235.

33) 윤선희, “북한 청소년의 한류 읽기: 미디어 수용에 나타난 문화 정체성과 사회 변화,” 『한국언론학보』, 제55권 1호 (2011), pp. 435~460.

34) 이미나·오원환, “북한 및 제3세계에서의 한류 수용 경험과 한국 문화 적응: 탈북청년을 중심으로,” 『방송통신연구』, 통권 제82호 (2013), pp. 75~101.

통해 중국에 체류 중인 북한주민을 상대로 한 연구가 제한적이거나 이루어졌다.³⁵⁾ 특히 강동완³⁶⁾은 17명의 북한주민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남한 영상물의 보급과 시청 실태를 조사하였고,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북한주민의 남한 미디어 접촉이 그들의 인식 변화는 물론, 장마당의 활성화 등 사회상의 변화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이상의 연구들은 북한 내 남한 문화의 확산 경로와 그러한 확산이 가져오는 북한주민의 의식 변화를, 주로 심층면접을 통한 사후적 해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하지만 의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한 체계적인 인과분석은 부족하였고, 특히 본 연구의 주제인 통일의식에 대해 남한 문화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까지 연구되지 않았다. 통일의식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은 현재까지 주로 남한 시민들의 입장에서만 다루어져 왔다.³⁷⁾ 하지만 통일이란 남북 양자 간에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어느 한 쪽만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³⁸⁾ 특히 통일을 제도적 차원을 넘어 서로 다른 사회 간의 통합의 과정으로 본다면 통일의 또 다른 한 축인 북한주민들이 통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북한주민들이 얼마나 통일을 필요로 하는지, 통일을 얼마나 가까이 예측하고 있는지, 얼마나 이로운 것으로 여기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식의 통일을 기대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 통일로 가는 과정이 달라지고, 우리의 통일 정책 역시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35) 임석준·강동완·김현정, “북한의 한류 연구,” pp. 83~111.

36) 강동완, “북한으로의 외래문화 유입 현황과 실태: 제3국에서의 북한주민 면접 조사를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제60집 (2014), pp. 167~202.

37) 강동완·박정란, “북한주민의 통일의식 조사 연구: 북한주민 100명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23권 2호 (2014), pp. 2~3.

38) 위의 논문, p. 2.

3. 본 연구의 목적과 기여

이러한 문제외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북한주민의 남한 문화 경험이 그들의 통일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북한주민이 남한 문화에 자주 노출될수록 통일을 더 필요하다 여기는지, 통일의 시기를 앞당겨서 예견하는지, 통일이 북한 사회와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지, 그리고 남한 체제가 중심이 되는 통일을 원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남한 문화 경험과 통일외식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의미 있는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남북 간의 사회문화 교류가 얼마나,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북한사회를 변화시키는지의 문제는 정계 뿐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논쟁이 되어왔다. 이러한 논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남한 문화의 접촉이 북한주민들의 통일외식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밝혀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만일 남한 문화에 더 많이 노출된 사람일수록 통일을 더 필요하고 이로인한 것으로 여기고, 남한 체제로의 흡수통일을 원하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남북 문화교류 정책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는 뒷받침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적어도 문화를 통한 남북 간 접촉의 확대가 가지는 정책적 효용성에 대해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북한이탈주민 의식조사와 사회변동 조사 설문데이터를 사용하고자 한다. 통일평화연구원에서는 2008년부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는데, 특히 2011년부터는 직전 해에 탈북한 주민들만을 표본으로 하여 조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이러한 표본 모집은 모집단의 수를 크게 줄인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같은 시기에 탈북한 사람들을 대

상으로 함으로써 특정 시기의 북한 실태 및 주민들의 의식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³⁹⁾ 또한 본 연구가 북한주민의 의식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록 현재 북한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에서의 기억이 비교적 생생한 탈북민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것은 최선은 아니어도 차선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주제인 통일의식에 대한 설문 문항들이 모두 응답자가 ‘북한에 살고 있을 때’의 생각을 물었다는 점에서, 해당 자료는 탈북민으로서가 아닌 북한주민으로서의 의식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물론 탈북자라는 집단 자체의 특이성으로 인해 과연 이들이 북한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제기된다. 하지만 김병로⁴⁰⁾가 주장하듯, 이들에 대한 조사가 여러 해 축적되어 충분히 다양한 집단의 샘플이 구성되었고, 또한 직접적으로 북한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했던 다른 연구들과 많은 항목에서 비슷한 응답 패턴이 나왔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문이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 798명⁴¹⁾에 달하는 탈북민에 대한 자료가 누적됨으로써 통계를 활용한 다변인 분석이 가능해졌다는 점 역시 본 자료의 강점이라 할 수 있겠다.

이상을 종합할 때 본 논문이 기존의 연구에 기여하는 바는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존에 분석된 바 없는 북한주민들의 남북 문화 경험과 통일의식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힘으로써 북한 내 한류와 통일의식 연구에 대한 이론적 기여를 하고자 한다. 둘째, 정책적으로 남북

39) 정은미 · 김병로 · 박명규 · 최규빈, 『북한주민 통일의식 2015』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6), p. 21.

40) 김병로, “탈북자 면접조사를 통해 본 최근 북한사회의 변화,” 『북한연구학회보』, 제18권 2호 (2012), pp. 147~172; 김병로, “탈북자 면접조사를 통해 본 최근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변화,” 『통일과평화』, 6집 2호 (2014), pp. 39~65.

41) 조사연도별 샘플의 수는 각각, 2011년 105명, 2012년 127명, 2013년 133명, 2014년 149명, 2015년 146명, 그리고 2016년 138명이다.

간 문화 교류가 북한주민의 의식 변화에 가지는 효용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유의미한 함의를 주고자 한다. 셋째, 다년간 동일한 기관에서 축적한 탈북민들에 대한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다 정교한 인과분석을 시도함으로써, 방법적인 면에서 심층면접 위주의 기존 연구를 보완하고자 한다.

Ⅲ. 가설과 변수

북한주민의 통일의식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할 설문 문항은 다음의 다섯 가지이다. ‘귀하는 북한에 살 때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여겼는가?’ ‘북한에 살 때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생각했는가?’ ‘북한에 살 때 통일이 북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 생각했는가?’ ‘또한 자신에게는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 생각했는가?’ 마지막으로, ‘북한에 살 때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는가?’ 이 다섯 가지 문항은 다음 장에서 진행될 일련의 통계분석에서 종속변수로 사용되며, 보다 직관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재코딩되었다. 특히 마지막 통일의 방식에 대한 문항은 응답치가 서열(ordinal) 척도가 아닌란 점에서 ‘남한의 현 체제로 통일한다’는 응답만을 1로 하고 나머지 응답들—‘북한의 현 체제로 통일한다’, ‘북한과 남한의 체제를 절충한다’, ‘북한과 남한의 두 체제를 각각 유지한다’,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다’—은 0으로 하는 더미(dummy) 변수로 바꾸어 분석하였다.

이러한 각각의 통일의식에 남한 문화 경험이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응답자의 남한 문화 접촉 빈도를 주된 독립변수로 삼았다. 이를 위해 사용한 문항은 다음과 같다. ‘귀하는 북한에 살 때 남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 등을 접해본 경험이 있는가? 이에 대한 응답으로는 ‘자주 접해봤다’, ‘한두 번 접해봤다’, ‘전혀 접해보지 못했다’의 3점 척도가 사용되었다. 만약 남한 문화 경험이 통일 의식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다면, 자주 접해본 사람일수록 통일을 더 필요하다고 여기고, 통일이 더 이른 시기에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하며, 북한과 자신에 더 이익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또한 남한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가설이 보다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대항(rival) 가설들을 함께 고려해주어야 한다. 이론적으로 양자의 관계를 대신 설명할 수 있는 제3의 요인들에 대한 고려가 없이는 자칫 의사관계(spurious relationship)를 참된 인과관계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⁴²⁾ 그렇다면 어떠한 요인들이 그러한 제3의 요인이 될 수 있는가? 첫째로, 위에서 정리한 일련의 연구에서 나타나듯,⁴³⁾ 남한의 미디어가 주로 유통되는 경로는 장마당의 거래를 통해서이다. 따라서 장사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남한 미디어를 접했을 수 있고, 북한의 지배질서에 위배되는 지하경제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통일을 더 열망하고 보다 이로운 것으로 여길 수 있다. 만일 그렇다면, 남한 문화와 통일 의식 사이의 관계는 장사의 경험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장마당 등을 통해 획득한 남한의 미디어가 대 인간의 돌려보기로 확산된다는 연구⁴⁴⁾에 비추어 볼 때, 지역 간 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보다 다양한 남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다양한 지역을 다니며 북한 사회의 모순을 종합

42) Janet Buttolph Johnson, H. T. Reynolds and Jason D. Mycoff, *Political Science Research Methods*, 6th edition (CQ Press, 2008), pp. 123~126.

43) 강동완, “북한으로의 외래문화 유입 현황과 실태: 제3국에서의 북한주민 면접 조사를 중심으로,” pp. 167~202; 이용희, “북한 내 한류가 통일에 미치는 영향,” pp. 151~191.

44) 강동완·박정란, “남한 영상매체의 북한 유통경로와 영향: 지역간·대인간 연결 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pp. 107~140.

적으로 관찰한 사람은 통일을 보다 필요하다 여기고, 특히 남한 체제 중심의 통일을 지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타지역 방문에 대한 변수를 분석에 추가할 시, 남한 문화 경험의 영향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한 문화를 자주 접촉한 사람은 원래부터 남한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많은 사람일 수 있고, 이러한 사람들은 보다 진취적이고 반체제적인 통일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남한에 대한 지식수준 역시 통제하여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고려에 따라 첫째, 응답자가 북한에 살 때 장사를 한 경험이 있는지를 이분법적으로 묻는 설문 문항을 모델에 추가하여 분석해 보겠다. 둘째, 북한 거주 시 얼마나 다른 지역에 가보았는지를 추가적으로 분석에 고려하겠다. 셋째, 남한과 관련된 네 가지 사항—4·19혁명, 5·18광주항쟁, 88서울올림픽, 2002월드컵—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남한 사회에 대한 지식의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활용토록 하겠다. 이러한 요인들을 통제한 후에도 남한 문화 경험 변수의 영향력이 유지된다면, 문화 접촉과 통일의식 간의 관계가 의사관계가 아님이 증명될 것이다. 반면 대항 변수들의 추가로 남한 문화 경험의 영향력이 크게 약화된다면, 문화 접촉과 통일의식 간의 관계가 상당 부분 해당 변수에 의해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북한주민의 문화 접촉이 통일의식에 대해 가지는 영향력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남한 문화 접촉의 영향력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개인적 가치와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 또한 테스트해 보겠다. 위의 미디어 연구에서 나타나듯 수용자가 미디어의 어떠한 내용을 선별하여 받아들이는지, 어떠한 인지적·정서적 반응을 보이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태도 변화로 연결되는지는 수용자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즉, 같은 남한 미디어라 하더라도 이를 수용하는 북한주민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상이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박정란과 강동완이 지적하였듯,⁴⁵⁾ 북한 사회의 정치사회화 정도가 심한 사람은 남한 미디어의 부정적 측면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오히려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응답자의 북한에서의 정치사회화 정도를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당원 여부, 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그리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중 지지하는 경제체제를 기준으로 각각 집단을 나누어 남한 문화 경험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당원 여부는 북한에 있을 때 당원 또는 후보 당원이었던 집단(1)과 아니었던 집단(0)으로, 남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은 매우 혹은 약간 있다는 집단(1)과 별로 혹은 전혀 없다는 집단으로(0), 그리고 지지 경제체제는 사회주의 경제를 훨씬 또는 약간 더 지지하거나 둘을 비슷하게 지지하는 집단(0)과 자본주의 경제를 훨씬 또는 약간 더 지지하는 집단(1)으로 나누었다. 정치사회화 정도가 높을수록 남한 문화의 영향력이 약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점에서, 당원일수록, 남한을 무력 도발이 가능한 위협적 존재로 인식할수록, 그리고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지지할수록 남한 문화의 경험은 유의미하지 않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변수들에 대한 고려와 함께 나이, 성별, 교육수준, 북한에서의 소득수준 등 응답자의 기본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이상을 종합한 각 변수들의 값과 응답률을 <표 1>에 정리하였다.

45) 박정란 · 강동완, “북한주민의 남한 미디어 수용과 ‘왜곡된 남한 상.’” pp. 239~270.

〈표 1〉 변수의 값에 따른 응답자 분포

종속 변수							
통일의 필요성	응답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값	1	2	3	4	5	
	빈도(%)	0.1	0.6	3.3	2.4	93.6	
통일 시기	응답	5년 이내	10년 이내	20년 이내	30년 이내	30년 이상	불가능하다
	값	1	2	3	4	5	6
	빈도(%)	14.3	26.9	8.6	2.8	5.5	41.9
통일의 집단 이익	응답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값	1	2	3	4		
	빈도(%)	0.4	1.0	7.4	91.2		
통일의 개인 이익	응답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값	1	2	3	4		
	빈도(%)	0.9	2.5	17.9	78.7		
통일 방식	응답	남한의 현 체제로 통일한다	기타				
	값	1	0				
	빈도(%)	43.8	56.3				
독립 변수							
남한 문화 경험	응답	전혀 접해보지 못했다	한두 번 접해봤다	자주 접해봤다			
	값	1	2	3			
	빈도(%)	13.6	39.6	46.9			
장사 경험	응답	있다	없다				
	값	1	0				
	빈도(%)	71.9	28.1				
다른 지역 방문	응답	거의 가보지 못했다	가끔 가보았다	자주 가보았다			
	값	1	2	3			
	빈도(%)	32.5	40.8	26.6			
남한에 대한 지식 (4개 변수 평균)	응답	전혀 몰랐다	조금 알았다	들어본 적 있다	매우 잘 알았다		
	값	1~1.75	2~2.75	3~3.75	4		
	빈도(%)	27.9	42.5	24.6	5.1		

집단 구분 변수							
당원 여부	응답	당원	후보당원/ 비당원				
	값	1	0				
	빈도(%)	15.1	84.9				
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응답	19.4	25.6	26.9	28.1		
	값	1	2	3	4		
	빈도(%)	전혀 없다	별로 없다	약간 있다	많이 있다		
경제체제 지지	응답	사회주의 경제를 훨씬 더 지지했다	사회주의 경제를 약간 더 지지했다	두 가지 모두를 비슷하게 지지했다	자본주의 경제를 약간 더 지지했다	자본주의 경제를 훨씬 더 지지했다	
	값	1	2	3	4	5	
	빈도(%)	7.8	7.5	12.6	32.4	39.7	
통제 변수							
나이	값	18~29	30~39	40~49	50~59	60~	
	빈도(%)	33.1	23.4	24.4	12.5	6.6	
성별	응답	여성	남성				
	빈도(%)	61.0	39.0				
교육수준	응답	무학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전문학교	대학교	
	빈도(%)	0.5	1.5	67.0	16.6	14.4	
소득수준	응답	0	천 원 이하	5천 원 이하	만 원 이하	10만 원 이하	10만 원 초과
	값	0	1	2	3	4	5~7
	빈도(%)	50.4	6.1	34.6	2.4	3.6	2.9

IV. 분석 및 결과

변수들 간의 회귀 분석에 앞서 주요 독립 변수인 남한 문화 경험에 대한 추이를 간단하게 살펴보겠다. 먼저 <그림 1>의 왼쪽 그래프는 조사가 시작된 2011년부터 북한주민의 남한 문화 경험 빈도에 대한 추이를 연도 별로 보여주고 있다. 비록 2016년에 남한 문화를 자주 접해왔다는 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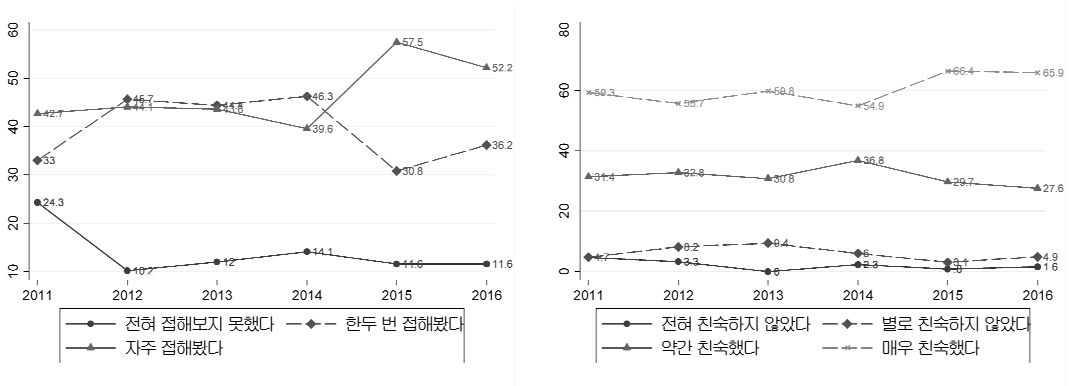
답의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지난 5년간 남한 문화 접촉 빈도가 증가세에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2012년 김정은이 정권을 잡은 이후, 남한 문화를 전혀 접해보지 못했다는 비율이 큰 폭(24.3%→10.2%)으로 줄어든 점을 볼 때 김정은 시대의 정치경제적 혼란으로 중국으로의 밀수와 장마당 경제가 활성화되었고, 이로 인해 남한 미디어의 유입과 지역 간 이동이 증가함으로써 북한주민의 남한 문화 경험이 증가하였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같은 시기 한류의 폭발적인 성장 역시 이러한 추세에 한 몫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남한 문화를 접해 본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남한의 방송, 영화, 드라마, 음악을 접했을 때 어떠한 느낌이 들었는지를 물어보았다. 그래프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주민들은 남한 문화를 전반적으로 친숙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폭이기는 하나 남한 문화에 대한 친숙도 역시 해가 지남에 따라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북한주민들이 이제 어느 정도 남한 문화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박정란과 강동완의 연구에서 보듯,⁴⁶⁾ 남한 문화의 내용에 익숙하지 않을 경우 북한에 비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가 많은 남한 미디어에 거부감을 느끼고 남한에 대해, 나아가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남한 문화에 대한 친숙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남한 미디어가 북한주민의 긍정적 통일인식 형성에 기여했을 것이란 추측을 가능케 해준다.

46) 박정란·강동완, “북한주민의 남한 미디어 수용과 ‘왜곡된 남한 상.’” pp. 239~270.

〈그림 1〉 북한주민의 남한 문화 경험 빈도 및 친숙도

(단위: %)



2015년도 조사부터는 남한 문화의 접촉 경로에 대한 질문이 추가되었다. <표 2>에 나타난 조사 결과, ‘주변의 친척, 이웃, 친구 등에게 구해서 접했다’는 응답이 두 해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변사람들과 함께 접했다’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외국에 나갔을 때 접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2016년도 조사에서 ‘시장에서 직접 구했다’는 응답을 뛰어넘어, 북한 당국의 통제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음이 간접적으로나마 드러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시장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 남한 문화를 적극적으로 구하는 북한주민들의 수가 수동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의해 또는 환경에 의해 접하게 되는 수보다 많다는 것이다. 즉, 전자의 경우 2015년에는 72.1%, 2016년에는 74.8%를 기록하여 후자의 27.9%, 25.2%보다 많은 비중을 보였다. 이를 통해 북한주민들은 남한문화를 어쩌다 접하게 되는 것이 아닌, 보다 적극적인 수용자로 남한의 문화를 소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자발적 수요의 비중이 높다는 것 또한, 이들이 남한 문화를 원하고 좋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통일 인식 형성으로 이어졌을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표 2〉 북한주민의 남한 문화 유통 경로

(단위: %)

	시장에서 직접 구하여 접했다	주변 사람들에게서 구하여 접했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접했다	외국에 나갔을 때 접했다	합계 (N)
2015년	8.2	63.9	23.8	4.1	122
2016년	6.5	68.3	17.9	7.3	123

본격적인 통계 분석을 위해, 종속변수가 순위형(ordered) 변수인 경우 순위(ordered) 로지스틱 회귀모델을, 이원(binary) 변수인 경우는 일반 로지스틱 회귀모델을 사용하였다. 전체 표본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조사된 총 798명의 북한이탈주민들로 구성되었다. 조사년도 별로 탈북 시점이 다르고 설문이 시행된 시점 역시 다르다는 점에서 각 연도 별 응답자의 유사성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집단 내 유사성이 고려되지 않을 경우 편향된 추정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⁴⁷⁾ 집단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고정효과(fixed effect)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과 확률효과(random effect)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 중 확률효과 모델은 각 집단의 효과가 고정적이 아닌 가변적인 것으로 가정하여, 집단 수준의 오차항을 개인 수준의 오차항과 별도로 상정한다. 이 경우 집단 수준의 변수들이 가지는 효과를 개별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나, 본 샘플과 같이 집단의 개수가 적은—6개—경우에는 제대로 된 집단 효과를 추정하기 어렵다. 또한 본 연구가 각 집단, 즉 각기 다른 탈북시점이 미치는 영향력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닌, 집단 내 개인 수준의 관계들을 분석하려 한다는 점에서 확률효과 모델은 연구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고정효과 모델은 각 집단의 효과를 모델 내 변수로 포함하여 통제해 줌으로써 집단 내 개인 수준의 변인이 가지는 영향력을 분석하기에 적합하다. 즉 고정효과 모델은

⁴⁷⁾ Sophia Rabe-Hesketh and Anders Skrondal, *Multilevel and Longitudinal Modeling Using Stata: Volume 1* (College Station, TX: STATA Press, 2012), pp. 1-3.

연구자가 집단 수준의 변인에 관심이 없거나, 이론적으로 집단이 가지는 다양한 효과들을 개별 변수로 다 통제하기 힘든 경우에 사용하기 적합한 모델이라 할 수 있다.⁴⁸⁾ 이러한 고려에 의해 본 연구는 각각의 조사년도 를 더미변수화하여 통제된 고정효과 모델을 사용하였다.⁴⁹⁾

먼저 문화 접촉 변수를 제외한 통제변수만을 가지고 분석한 기본 모델의 결과가 <표 3>에 나타나있다. 비선형 모델인 로지스틱 모델은 계수 값만으로는 직관적 해석이 어렵기에, 독립변수 1 단위의 증가가 종속변수의 1 단위 증가를 가져 올 확률을 의미하는 ‘오즈비(odds ratio)’를 우측에 함께 괄호로 표시하였다. 다섯 개의 통일의식 항목에 걸친 분석 결과에서 드러나듯이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성향 및 탈북 시기는 통일의식에 일관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 가장 일관적인 영향력을 보인 것은 나이 변수로, 나이가 많을수록 통일을 더 필요한 것으로 여기고, 통일을 더 이르게 예견하고, 통일이 자신에게 더 이익이 될 것이라 보았다. 하지만 ‘통일 방식’에 대해서는 남한 체제로의 통일은 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즈비를 보면 나이가 한 살 많아질수록 남한체제로의 통일을 지지할 확률이 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은 북한주민의 경우 통일을 보다 필요하고 이로운 것으로 여기며 통일이 더 빨리되기를 바라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남한의 흡수통일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48) 고정효과와 확률효과의 선택에 있어 보다 자세한 논의는 다음의 논문들을 참고하기 바란다: Andrew Bell and Kelyvn Jones, “Explaining Fixed Effects: Random Effects modelling of Time-Series Cross-Sectional and Panel Data,” *Political Science Research and Methods*, vol. 3, no. 1 (2015), pp. 133-153; Tom S. Clark and Drew A. Linzer, “Should I Use Fixed or Random Effects,” *Political Science Research and Methods*, vol. 3, no. 2 (2015), pp. 399-408.

49) 통계분석을 위해 STATA 14.2 버전을 사용하였고, 순위 로지스틱 모델에는 ologit, 이항 로지스틱 모델에는 logit 명령어를 사용하였다.

〈표 3〉 북한주민의 통일의식에 대한 기본 모델

변 수	통일의 필요성		통일 시기		통일의 북한에 대한 이익		통일의 자신에 대한 이익		남한 체제로의 통일	
	Odds		Odds		Odds		Odds		Odds	
	Coeffi.	Ratio	Coeffi.	Ratio	Coeffi.	Ratio	Coeffi.	Ratio	Coeffi.	Ratio
나이	0.05 ^{***}	(1.05)	-0.01 ^{**}	(0.99)	0.00	(1.00)	0.04 ^{***}	(1.04)	-0.02 ^{***}	(0.98)
여성	0.25	(1.29)	0.20	(1.22)	-0.28	(0.76)	-0.02	(0.98)	-0.21	(0.81)
교육수준	-0.17	(0.84)	-0.02	(0.98)	0.08	(1.08)	-0.06	(0.94)	-0.02	(0.98)
소득수준	0.14	(1.15)	0.14 ^{***}	(1.15)	0.03	(1.03)	-0.05	(0.95)	0.07	(1.07)
2011년 조사	0.66	(1.93)	-0.48 [*]	(0.62)	0.42	(1.52)	-0.23	(0.79)	n/a	
2012년 조사	0.00	(1.00)	0.07	(1.08)	-1.21 ^{***}	(0.30)	-0.98 ^{***}	(0.38)	n/a	
2013년 조사	0.16	(1.17)	0.18	(1.19)	-0.18	(0.84)	-0.14	(0.87)	n/a	
2014년 조사	1.78 ^{***}	(5.94)	0.11	(1.12)	-0.03	(0.97)	0.01	(1.01)	-0.02	(0.98)
2015년 조사	1.28 ^{**}	(3.61)	0.08	(1.08)	0.17	(1.18)	0.39	(1.47)	0.24	(1.27)
응답자수	748		746		748		748		430	
Log-Likelihood	-215.88		-1076.77		-250.18		-451.48		-289.07	

비고: Two-tailed test, *** p<.01, ** p<.05, * p<.1, 순위 로지스틱 모델의 경우, 종속변수 각 값에 상응하는 잠재변수의 분기점(cut points)의 추정치는 생략함.

〈표 4〉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라 할 수 있는 남한 문화의 경험 정도를 위의 기본 모델에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다른 변수의 영향력 및 통계적 유의미도에는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남한 문화의 경험 변수는 ‘통일의 필요성’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모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항목 별로 살펴보면 ‘통일 시기’의 경우, 남한 문화 경험의 빈도가 한 단위 증가할수록 한 단위(5~10년) 늦게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할 확률(odds)이 1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한 문화를 더 자주 접한 사람일수록 통일을 더 이른 시기로 예측한 것이다. ‘통일의 이익’에 대해서는 남한 문화의 접촉이 증가할수록 통일이 북한 사회와 개인에게 더 이로울 것이라 보는 확률이 각각 58%와 35% 더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한 미디어를 통해 발전한 한국 사회를 경험할수록 통일로 인해 북한 사회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

지만, 그러한 이익이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란 기대는 그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일 방식’에 대해서는 남한 문화를 더 자주 접한 사람이 남한 체제로의 통일을 원할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4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하게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남한 문화의 경험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지 못하였는데, 이는 다른 이유보다도 조사대상의 절대 다수에 해당하는 96%의 응답자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4〉 북한주민의 남한 문화 경험이 통일의식에 미치는 영향

변 수	통일의 필요성		통일 시기		통일의 북한에 대한 이익		통일의 자신에 대한 이익		남한 체제로의 통일	
	Odds		Odds		Odds		Odds		Odds	
	Coeffi	Ratio	Coeffi	Ratio	Coeffi	Ratio	Coeffi	Ratio	Coeffi	Ratio
나이	0.05 ***	(1.05)	-0.01 **	(0.99)	0.01	(1.01)	0.04 ***	(1.04)	-0.02 **	(0.98)
여성	0.25	(1.29)	0.15	(1.16)	-0.15	(0.86)	0.08	(1.08)	-0.13	(0.88)
교육수준	-0.18	(0.84)	0.01	(1.01)	0.00	(1.00)	-0.11	(0.90)	-0.06	(0.94)
소득수준	0.14	(1.15)	0.12 **	(1.13)	0.05	(1.05)	-0.03	(0.97)	0.08	(1.09)
2011년 조사	0.65	(1.92)	-0.52 **	(0.60)	0.44	(1.55)	-0.18	(0.83)	n/a	
2012년 조사	0.00	(1.00)	0.06	(1.06)	-1.24 ***	(0.29)	-1.00 ***	(0.37)	n/a	
2013년 조사	0.16	(1.18)	0.15	(1.17)	-0.14	(0.87)	-0.11	(0.90)	n/a	
2014년 조사	1.78 ***	(5.94)	0.07	(1.08)	0.02	(1.02)	0.06	(1.06)	0.03	
2015년 조사	1.28 **	(3.61)	0.07	(1.07)	0.16	(1.17)	0.39	(1.48)	0.23	(1.26)
남한 문화 경험	0.01	(1.01)	-0.19 *	(0.83)	0.46 **	(1.58)	0.30 **	(1.35)	0.33 **	(1.40)
응답자수	747		745		747		747		430	
Log-Likelihood	-215.86		-1074.36		-247.52		-447.56		-286.64	

비고: Two-tailed test, *** $p < .01$, ** $p < .05$, * $p < .1$, 순위 로지스틱 모델의 경우, 종속변수 각 값에 상응하는 잠재변수의 분기점(cut points)의 추정치는 생략함.

정리하면, 남한 문화에 더 자주 노출될수록 통일의 시기를 보다 이르게 예상하고, 통일이 북한 사회와 자신,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남한 체제로의 통일에 찬성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남한 문화의 경험이 북한주민의 긍정적 통일의식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남한 문화 경험과 통일외식 사이의 관계는 제3의 요인에 의해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 북한주민의 남한 문화 접촉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세 가지 요인, 즉 장사의 경험과 타 지역 방문 빈도, 그리고 남한에 대한 지식 변수를 위의 모델에 각각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표 5>의 분석 결과, 추가된 대항 변수들은 거의 모든 모델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지 못한 반면, 남한 문화 경험 변수는 기존의 영향력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였다. 즉, 북한주민의 남한 문화 경험은 그들의 통일외식 형성에 있어 다른 요인들에 의해 설명될 수 없는 독립적이고 강한 영향력을 가진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표 5> 북한주민의 통일외식에 대한 남한 문화 경험의 영향력을 설명하는 대안 모델

변 수	통일의 필요성		통일 시기		통일의 북한에 대한 이익		통일의 자신에 대한 이익		남한 체제로의 통일	
	Odds		Odds		Odds		Odds		Odds	
	Coeffi.	Ratio	Coeffi.	Ratio	Coeffi.	Ratio	Coeffi.	Ratio	Coeffi.	Ratio
〈장사 경험 추가 모델〉										
남한 문화 경험	0.00	(1.00)	-0.19*	(0.83)	0.49**	(1.63)	0.30**	(1.35)	0.33**	(1.40)
장사 경험	0.01	(1.01)	-0.02	(0.98)	-0.23	(0.79)	-0.03	(0.97)	0.01	(1.01)
응답자수	745		743		745		745		430	
Log-Likelihood	-215.62		-1069.32		-247.01		-446.71		-286.64	
〈타 지역 방문 추가 모델〉										
남한 문화 경험	-0.01	(0.99)	-0.21*	(0.81)	0.58***	(1.79)	0.33**	(1.39)	0.34**	(1.40)
타 지역 방문	0.08	(1.08)	0.08	(1.08)	-0.42**	(0.66)	-0.10	(0.90)	-0.03	(0.97)
응답자수	746		744		746		746		429	
Log-Likelihood	-215.77		-1071.05		-244.99		-447.05		-285.88	
〈남한에 대한 지식 추가 모델〉										
남한 문화 경험	-0.01	(0.99)	-0.20*	(0.82)	0.50**	(1.64)	0.33**	(1.39)	0.38**	(1.46)
남한에 대한 지식	0.18	(1.20)	-0.06	(0.94)	-0.05	(0.95)	0.09	(1.09)	0.12	(1.13)
응답자수	710		709		710		710		422	
Log-Likelihood	-195.51		-1020.29		-229.40		-421.49		-279.23	

비고: Two-tailed test, *** p<.01, ** p<.05, * p<.1, 통계변수의 결과는 이전 모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생략함.

그렇다면 이러한 남한 문화 경험의 영향력은 이를 받아들이는 북한주민의 정치사회화 정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일까? 당원 여부, 남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에 대한 견해, 그리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중 어떠한 경제체제를 더 지지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기준으로 집단을 나누어 <표 4>에서 실시한 회귀 분석을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표 6>에서 나타난 결과, 예상대로 비당원 집단에서, 남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이 별로 혹은 전혀 없다고 본 집단에서, 그리고 사회주의보다 자본주의를 지지한 집단에서, 남한 문화 경험이 통일의식에 보다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미디어의 영향력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 수용자의 특징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기존의 연구결과들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표 6> 북한주민 집단 구분에 따른 남한 문화 경험의 영향력

종속 변수	당원 여부		남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		경제체제 지지	
	당원	비당원	있다	없다	사회주의	자본주의
통일의 필요성	-0.24	-0.01	-0.08	0.21	0.04	-0.20
통일 시기	-0.34	-0.16	-0.14	-0.29*	-0.08	-0.22*
통일의 북한에 대한 이익	1.00	0.37*	0.26	0.72**	-0.13	0.73***
통일의 자신에 대한 이익	-0.14	0.35**	0.19	0.47**	0.30	0.14
남한 체제로의 통일	0.03	0.37**	0.34	0.26	0.20	0.27

V. 결론

본 논문은 북한주민의 남한 문화 경험이 그들의 통일외식에 미치는 영향을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직전 해에 북한을 탈출한 798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비록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직접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최근에 탈북한 사람들에게 북한에 거주할 당시의 상황과 견해를 물음으로써 어느 정도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다년간 실시된 조사결과로 계량 분석에 적합한 수의 표본이 확보되어, 여러 변인들의 영향력을 동시에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 북한주민이 남한 문화를 자주 경험할수록, 보다 진취적이고 긍정적으로 통일에 대한 의식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한 문화에 대한 노출이 잦을수록 통일의 시기를 앞당겨 예상하고, 통일을 사회와 개인 모두에게 이로운 것으로 여기며, 남한 체제로의 통일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북한주민의 남한 문화 경험이 긍정적 통일외식 형성에 기여한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주민의 남한 문화의 수용과 관련된 대안적 설명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사의 경험, 타 지역 이동, 그리고 남한 사회에 대한 지식 등의 요인은 이러한 남한 문화와 통일외식 사이의 관계를 약화시킬 수 없음이 밝혀졌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미디어를 받아들이는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북한주민의 정치사회화 정도에 따라 남한 문화 경험의 영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에서 당원이었던 집단과 남한을 보다 위협적으로 인식했던 집단, 그리고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자본주의보

다 지지했던 집단에서는 남한 문화 접촉과 통일의식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남한 문화를 받아들이는 측이 어떠한 사회적 특성과 가치,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그 문화의 영향력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이 증명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비단 이론적 측면 뿐 아니라 정책적 측면에서도 의미있는 함의를 준다. 우리 사회는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에 있어 늘 분열된 양상을 보여 왔다. 특히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 이후 이전에는 없던 진보적이고 적극적인 대북 포용정책이 시행되면서, 통일에 대한 논의는 각자의 당파를 따르는 정치적 쟁점으로 쉽게 비화되곤 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과의 사회문화 교류가 가지는 효용성 역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문화가 북한에 전파되는 것이 실제로 그들의 의식에 얼마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적어도 통일의식의 측면에 있어서는 남한 문화를 자주 접하는 것이 북한주민의 긍정적인 의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됨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통일의 파트너인 북한주민들이 통일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남한 체제로의 통일을 바라도록 유인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차원에서 북한에 남한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남북 간의 문화교류는 늘 남북관계의 정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왔다. 남북 간의 문화교류는 1990년대 냉전의 종식과 함께 한반도에도 해빙의 바람이 불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1994년 북한 핵문제와 김일성의 사망 등으로 일시적으로 경색되었지만 1998년 출범한 ‘국민의정부’와 뒤이은 ‘참여정부’의 햇볕정책 기조에 힘입어 다시 활성화되었다. 하지만 확대되는 남북 교류만큼 이로 인한 남한 사회 내부의 남남갈등이 심화되고, 이명박 정부의 집권, 2008년 금강산 피격사건, 2009년 북한 핵 실험 및 미사일 발사, 그리고 2010년 천안함 사건 등을 계기로 남북 간의

교류협력 사업은 사실상 중단되게 되었다.⁵⁰⁾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통일대박론’을 외치긴 하였으나 실질적인 남북 교류의 개선은 미미한 실정이고, 더욱이 2016년 들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사드 배치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 교류의 폭은 더욱 좁아진 상태이다. 하지만 과거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 그리고 독일의 통일에 있어 서방 미디어의 영향력이 지대하였다는 점을 상기하면, 북한 사회 내부로부터의 변화를 이끌어 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과 전환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남한 미디어를 효과적으로 북한에 전파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들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당파적 논쟁은 자제하고 효과적으로 남북 간 문화교류가 증진될 수 있는 방안을 실용적 관점에서 논의해야 한다. 특히 문화교류와 협력은 민간차원에서도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간섭은 최대한 배제한 채 민간의 주도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즉, 남북 정세의 변화와 정권 교체에도 교류협력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민간에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정치의 논리가 간섭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북한 측의 적극적인 문화교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접촉의 확대가 북한 체제에 불안만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경제발전과 새로운 시장의 개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일례로 과거 남북의 아동영화(애니메이션) 공동제작으로 남한의 기술과 설비가 북한에 전수되면서 북한이 애니메이션의 제작과 수출을 육성한 바 있다.⁵¹⁾ 이를 통해 볼 때, 남북 공동의 방송·영화·음반 제작 및 콘텐츠 개발, 민족 역사와 유적에 대한 공동연구, 국제 문화행사 주최

50) 남북 문화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추진현황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남북 문화교류협력 사업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2013)를 참고하기 바란다.

51) 문화체육관광부, 『남북 문화교류협력 사업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p. 30.

및 관광협력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⁵²⁾ 남북 간 문화협력이 북한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 교류를 해묵은 좌우의 흑백논리로 바라보려는 시도를 거두고 남북 간 문화적 동질성의 회복과 상호이해 증진, 그리고 서로의 차이를 포용하고 함께 가려는 관용의 정신을 제고하기 위해⁵³⁾ 남북 간 문화교류의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일 것이다.

■ 접수: 2016년 10월 31일 / 심사: 2016년 11월 1일 / 게재확장: 2016년 12월 3일

52) 전영선, “남북 문화공통성 창출을 위한 방안,” 『통일인문학』, 제61집 (2015), pp. 223~230.

53) 양정훈, “남북 문화정책에 따른 사회문화 교류,” 『남북문화예술연구』, 통권 제8호 (2011), pp. 222~226.

【참고문헌】

국문 단행본

- 정은미·김병로·박명규·최규빈. 『북한주민 통일의식 2015』.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6.
- 문화체육관광부. 『남북 문화교류협력 사업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3.

국문 논문

- 강동완. “북한으로의 외래문화 유입 현황과 실태: 제3국에서의 북한주민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제60집, 2014.
- 강동완·박정란. “남한 영상매체의 북한 유통경로와 영향: 지역간·대인간 연결 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19권 2호, 2010.
- _____. “북한주민의 통일의식 조사 연구: 북한주민 100명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23권 2호, 2014.
- 강태영·황유신·강경미.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남한 텔레비전 시청 행위와 사회적응.” 『한국언론학보』, 제55권 6호, 2011.
- 곽정래. “북한이탈주민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사회적 가치 수용과 삶의 질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55권 3호, 2011.
- 김미라. “HDTV 조기 수용자의 능동적 미디어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50권 2호, 2006.
- 김병로. “탈북자 면접조사를 통해 본 최근 북한사회의 변화.” 『북한연구학회보』, 제18권 2호, 2012.
- _____. “탈북자 면접조사를 통해 본 최근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변화.” 『통일과 평화』, 6집 2호, 2014.
- 김봉철·최명일·김유미. “TV 자선모금 프로그램에 대한 수용자의 정서적·인지적 관여가 기부도에 미치는 영향.” 『미디어 경제와 문화』, 제10권 3호, 2012.
- 민인철·이동근. “능동적 수용자론에 대한 소고.” 『언론과학연구』, 제5권 3호, 2005.
- 박정란·강동완. “북한주민의 남한 미디어 수용과 ‘왜곡된 남한 상’.”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2012.

- _____. “북한주민의 남한 미디어 수용과 인권의식 변화.” 『북한학연구』, 제9권 2호, 2013.
- 성동규 · 양소정 · 김양은 · 임성원. “온-오프라인 정치참여에 대한 미디어 영향력 비교 연구: 뉴스이용 미디어에 따른 수용자 세분화를 중심으로.” 『사이버 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24호(2007).
- 양정훈. “남북 문화정책에 따른 사회문화 교류.” 『남북문화예술연구』, 통권 제8호, 2011.
- 윤선희. “북한 청소년의 한류 읽기: 미디어 수용에 나타난 문화 정체성과 사회 변화.” 『한국언론학보』, 제55권 1호, 2011.
- 윤여광. “미디어 세분화에 따른 수용자 자율성 증대와 새로운 콘텐츠 패러다임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제9권 1호, 2015.
- 이미나 · 오원환. “북한 및 제3세계에서의 한류 수용 경험과 한국 문화 적응: 탈북 청년을 중심으로.” 『방송통신연구』, 통권 제82호, 2013.
- 이용희. “북한 내 한류가 통일에 미치는 영향.” 『통일문제연구』, 제26권 2호, 2014.
- 이창훈 · 박성복. “시청기기 차이에 따른 수용자의 미디어콘텐츠 수용에 관한 연구: 수용자의 인지, 정서 반응과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26권 1호, 2012.
- 임석준 · 강동완 · 김현정. “북한의 한류 연구.” 『북한학연구』, 제10권 2호, 2014.
- 전영선. “남북 문화공동성 창출을 위한 방안.” 『통일인문학』, 제61집, 2015.
- 정은미. “남북한주민들의 통일 의식 변화: 2011~2013년 설문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과평화』, 5집 2호, 2013.
- 황상재 · 홍성현. “북한이탈주민의 온라인 · 오프라인 뉴스 미디어 이용과 정치사회화.”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29권 4호, 2012.

영문 단행본

- Almond, Gabriel A. and Sidney Verba. *The Civic Culture: Political Attitude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3.
- Ettema, James S. and David Charles Whitney. *Audiencemaking: How the Media Create the Audience*. Sage Publications, 1994.
- Garnham, Nicholas. *Emancipation, the Media, and Modernity: Arguments about the Media and Social Theory*.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 Huntington, Samuel P.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 Simon and Schuster, 1996.
- Inglehart, Ronald.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 Johnson, Janet Buttolph, H. T. Reynolds and Jason D. Mycoff. *Political Science Research Methods, 6th edition*. CQ Press, 2008.
- Putnam, Robert D.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 Rabe-Hesketh, Sophia and Anders Skrondal. *Multilevel and Longitudinal Modeling Using Stata: Volume I*. College Station, TX: STATA Press, 2012.
- Winston, Brian. *Media Technology and Society: A History From the Telegraph to the Internet*. Routledge, 1998.

영문 논문

- Bell, Andrew and Kelvyn Jones. "Explaining Fixed Effects: Random Effects modelling of Time-Series Cross-Sectional and Panel Data," *Political Science Research and Methods*, vol. 3, no. 1, 2015.
- Clark, Tom S. and Drew A. Linzer. "Should I Use Fixed or Random Effects," *Political Science Research and Methods*, vol. 3, no. 2, 2015.
- Dancey, Logan and Paul Goren. "Party Identification, Issue Attitudes, and the Dynamics of Political Debat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4, no. 3, 2010.
- Inglehart, Ronald and Wayne E. Baker. "Modernization, Cultural Change, and the Persistence of Traditional Valu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65, 2000.
- Inglehart, Ronald and Christian Welzel. "Political Culture and Democracy: Analyzing Cross-Level Linkages," *Comparative Politics*, vol. 36, no. 1, 2003.
- Kenski, Kate and Natalie Jomini Stroud. "Connections Between Internet Use and Political Efficacy, Knowledge, and Participatio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Electronic Media*, vol. 50, no. 2, 2006.
- Levy, Mark R. and Sven Windahl. "Audience activity and gratification: A conceptual clarification and exploration," *Communication Research* vol. 11, no. 1, 1984.
- Nelson, Thomas E., Rosalee A. Clawson and Zoe M. Oxley. "Media Framing of a Civil Liberties Conflict and Its Effect on Toleran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1, no. 3, 1997.

Power, Paul, Robert Kubey, and Spiro Kiouisis. "Audience Activity and Passivity." in William B. Gudykunst, ed., *Communication Yearbook 26*. Taylor & Francis, 2002, pp. 116~159.

Survey Analysis of the Effects of North Koreans' Exposure to South Korean Culture on Their Attitudes Toward Unification

Jung, Dong-Joon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As so-called “Hallyu” spreads all over the world, South Korean culture has become popular even in North Korea. Recent studies have investigated through what channels South Korean culture has disseminated in North Korea and what impacts it has had on the minds of North Korean people. However, the question of how South Korean culture has shaped their attitudes toward unification has not been explored yet. Based on the survey data of 798 North Korean defectors collected from 2011 to 2016, a series of regressive analyses reveal that those who have been more often exposed to South Korean culture are more likely to form positive attitudes toward unification in such ways that: they expect unification to come sooner; they see unification as more beneficial both to North Korean society as a whole and to themselves; and they prefer unification led by South Korean systems. These relations remain solid even after controlling for other rival explanatory variables such as underground market experiences, geographical mobility, and knowledge about South Korea. Also, it is found that such effects of media contacts vary according to the level of the respondents' political socialization during their residence in North Korea.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olicies expanding sociocultural exchang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should be effective as they bring positive attitudinal changes regarding unification into the North Korean society.

Key words: Hallyu in North Korea, Unification Attitudes, North Korean Defectors, Cultural Exchanges between Koreas, Media audience,

정동준(Jung, Dong-Joon)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University of Florida)에서 비교정치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탈사회주의 동유럽의 민주화, 정치행동과 태도, 선거와 정당, 시민사회 등을 연구하고 있다. 연구업적으로는 “*Making Embedded Knowledge Transparent: How the V-Dem Dataset Opens New Vistas in Civil Society Research*”(공저), “*The Wages of Extermination: Civil Society Strength at Regime Termination and Inequality in Postcommunist Eurasia*”(공저), “2016년 국회의원 선거 이후 시민들의 통일의식 변화: 이념적 양극화인가, 당파적 편향인가?”(2016) 등이 있다.